

참고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개요

사업개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05년 '아시아문화전당 국제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재미 건축가 우규승 씨의 '빛의 숲'**이 선정되었습니다. 작품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우규승 씨의 아시아문화전당 설계 안에는 빛과 숲의 개념을 전체 조성물에 도입되어, 5·18당시 시민군 본부로 사용된 전남도청 본관의 외관을 그대로 두고 주요 시설물을 지하 10개층 안에 집어넣은 지하광장 형태로 들어서게 됩니다

- 설계 : 빛의 숲 (설계자 : 우규승, 국제건축설계경기 당선작)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구 전남도청 일원)
- 규모 : 부지면적 128,621㎡, 연면적 173,539㎡
- 준공 : 2014년
- 주요시설 :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역사적 기억

- 5.18 민주항쟁을 기념하며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었던 광주의 역사성을 부각
- 5.18 민주광장 및 구 전남도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당의 새로운 시설물을 기존 지표면보다 낮게 배치하여 역사적 건물을 기념비화
- 모든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민주주의를 경축

신개념의 건축양식

- 지하를 굴착한 뒤 건물이 들어서는 "지상 공원화와 지하 건물"의 건축 양식
- 건물 안에서 밖의 경관을 볼 수 있으며, 천창(天窗) 개념을 도입, 낮에는 자연채광을 받아들이고 밤에는 불빛이 밖으로 뿜어져 나옴

건축계의 신경향인 지상공원화 및 지하건물 건축사례



루브르 박물관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뉴욕 WTC Memorial

열린 시민 도시공원 및 소통이 원활한 마당과 같은 광장

- 기존도시와 연계되어 약 100,000㎡의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광주천, 광주공원, 무등산을 연결하는 녹지축 형성
- 한국 전통 "마당" 개념을 도시적 차원에서 재해석하여 대지 한 가운데 아시아문화광장(5,100㎡)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을 배치
- 5.18민주광장, 아시아문화광장 및 열린 광장 등에서는 다양한 문화활동이 벌어지는 "마당"의 역할 수행

다양한 문화활동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시설

- 문화예술의 창조, 연구, 교류, 교육 및 향유 등이 결합된 복합문화 공간
- 전시·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한 장소에서 향유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에 부응

기본방향

- 광주의 역사적 정신적 중심에서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구현
- 아시아 문화를 연구 개발, 확산하여 아시아 동반 성장을 도모
- 창작, 전시, 공연 활동 등 아시아문화를 테마로 한 복합문화시설
-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한 인프라를 구축한 문화도시의 핵심기반 시설

문화전당의 구성 원칙

- 아시아문화의 허브 : 아시아문화 간 교류와 창조, 연구, 교육 및 향유의 이끌어내고 확산시키는 허브 역할 추진
- 문화중심도시 네트워크의 핵심거점 : 문화에너지가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에 전파 추진
- 전당의 장소마케팅을 통한 도심 활성화 : 공연, 전시, 교육이 상시적으로 개최되는 자연친화적인 첨단문화공간으로 도시 대표 랜드마크화 추진
- 산업화의 거점 : 문화산업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광주, 전남도시와 문화산업 육성 거점 기능 활성화 추진

중점가치 및 시설의 도출

가치	내용	시설
광주정신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 인권 평화의 광주정신을 아시아에 전파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 문화정체성	아시아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체험	아시아문화정보원
아시아 동반성장	공연·전시·문화산업·관광·마케팅을 통해 아시아 동반성장	아시아예술극장 문화창조원
미래지향성	어린이 교육문화 콘텐츠를 통해 미래에 대한 대비	어린이문화원

